

# 라상덕 Ra Sangdeok (b.1967)

 @rasangdeok

- 개 인 전 2024 라상덕 초대전 (대구 북갤러리)  
 2023 라상덕 개인전 (울산 문화예술회관)  
     라상덕 특별전 (서울 아트나인갤러리)  
 2022 라상덕 개인전 (서울 맨션나인갤러리)  
 2021 라상덕 초대개인전 (서울 정수아트센터)  
     라상덕 초대개인전 (서울 정수아트센터)  
 2020 라상덕 초대개인전 (울산 서정갤러리)  
 2019 라상덕 쉬어가기개인전 (울산 갤러리월)  
 2018 라상덕초대개인전 (남원 수지미술관)  
 2016 라상덕초대개인전 (대구 s&g 갤러리)  
 2013 라상덕초대개인전 (청도 에다소소갤러리)  
 2011 라상덕개인전 (서울.ABLE FINE ART NY GALLERY)  
 2010 라상덕개인전 (울산,울산문화예술회관)  
 2009 라상덕 개인전 (대구,메트로갤러리)  
     라상덕 개인전 (서울, setec)  
 2008 라상덕 개인전 (울산,H갤러리)  
     라상덕개인전 (대구, 메트로갤러리)  
 2006 라상덕개인전 (울산, 울산문화예술회관)  
 그 외 다수
- 초대 / 단체전 2023 페인터스페인팅전 (월플러스갤러리)  
     어포터블아트페어 (영국) / 바마아트페어 (부산) / 환대의식탁전 (수원)  
 2022 바마호텔아트페어 (부산) / 대구아트페어 (대구) / 바마아트페어 (부산)  
     영남의 전경전(포항포스코갤러리) / 조형아트서울(서울코엑스)  
     마이애미 스크아트페어 (미국) / 아트페어울산 (울산)  
 2021 영남의 전경전 (포항포스코갤러리) / 바마아트페어 (부산) / 조형아트서울 (서울)  
     울산 중견작가초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2020 바마아트페어 (부산) / 다므기전 (광주) / 구상작가회100호전(울산)  
 2019 바마아트페어(부산)  
 2018 대구아트페어 / 정글프로젝트정기전 (전주)  
 2016 서울 오픈아트페어  
 2014 라상덕, 김준용 개관초대전 (울산42 대안공간)  
 2013 홍콩컨템포러리 아트페어 (홍콩)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코엑스) / 정글프로젝트전(서울 한전아트센터)  
 2011 한유미술협회전 (대구) / 송울진전 (인천,울진) / 울산구상작가 부스전 (울산) / 봄을기다리며 (대구)  
     아름다운동행전 (대구) /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코엑스)  
 2010 서울오픈아트페어 (서울코엑스) / 대구아트페어 (대구)  
     라상덕,이동재 2인전(울산)일월산맥전(영양)송울진전(울산,울진)  
 2009 아시아오픈아트페어 (일본) / 한중미술교류전 (일본,중국) / 새로운조망전 (광주)  
     / 시각언어의 모색전 (익산)  
 2008 공존과조화전(서울) / 영호남교류전(울산,광주) / 전국예총 6대광역시 제주도미술작가초대전  
     아시아미술교류전(울산)  
 2007 대한민국 뉴 페이스 페인팅전(서울)울산미술협회전(울산)  
 그 외 다수
- 경 력 한국미술협회, 울산미술협회, 한유미술협회, 울산구상작가회, 구상작업미술가회,  
 아티스트그룹 정글, 아트나인갤러리 전속작가

## [Artist's Note]

---

숯가루를 사용한 최근의 추상 작업과 더불어 시각적 이미지 탐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페인팅 작업을 병행하며 언제나 불을 이야기한다.

불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인간의 찰나와 같은 뜨거운 한 생을 닮아 있다는 걸 보게 된다.

살아있는,

숯덩이 속에 머금고 있는 깊고 깊은 불씨를 꺼내어 그린다.

붉은 색에서 오히려 푸른 생명력을 읽은 감정을 작품안에 담아내는 작업이다

불과 숯이라는 이미지와 물성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싶지는 않다.

화가의 붓질, 음악가의 연주,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불에 의해 생성되어진 사물 등 모든 행위와 결과물들은 결국 불과 이어져 있다는 확신.

불의 생명이 다해 한줌의 재 조차 남지 않고 완전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붓질 숯질 불질은 계속될 것이며

작품을 직관하는 모든 관객들에게 자유로운 해석을 기대해 본다.